

일본 자본주의와 식민지 경제

-무역 측면에서 바라본 특질-

호리 가즈오(堀 和生)

- | | |
|----------------------|--------------------|
| I. 머리말 | IV. 일본 제국 내의 경제 관계 |
| II. 兩大戰間期の 동아시아 | V. 해방후에의 규정성 |
| III. 일본 제국주의의 경제적 특질 | VI. 맺음말 |

I. 머리말

戰前期의 일본 본국과 조선을 비롯한 식민지 사이의 경제 관계를 고찰할 때, 기존 연구에는 두 개의 커다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하나는 연구 방법, 인식 방법 문제이다. 그것은 동아시아에서 전통적인 一國主義적으로 인식하는 자세이다. 이러한 인식은 너무나 일반적이어서 문제라고 의식되지 않을 정도인데, 본 주제와 관련된 분야에서 말하자면 각 전문연구는 모두에 '일본' '조선' '대만' '만주' 등의 말들을 붙이고 있다. 그러나 식민지 사회에서 일본을 단순히 여건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인가? 또 근대 일본에 관한 연구에서도 대외 관계 내지 식민지는 독립된 분야로 연구될 뿐, 일본 자본주의사 연구 가운데에서 폭넓게 다루어지는 경우는 드물다. 글로벌리제이션(전 지구화)이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현재, 그와 같은 一國을 초월한 사회관계의 인식을 어느 시기까지 소급시키는 것이 적당할까? 적어도 각국·지역의 주권을 통합한 제국주의 시대까지 일국·일지역별로 연구하는 것의 부적절함은 충분히 확인해둘 필요가 있다.

또 하나는 대상에서 오는 문제인데, 본서가 대상으로 하는 일본, 조선, 대만에서는 戰後에 정치체제가 크게 단절되었다. 일본은 메이지헌법에 의한 천황제가 부정되고 신헌법에 의한 의회제 민주주의체제로 크게 전환했다. 조선은 1945년 8월 일본제국으로부터 해방되었지만 미소의 분할 점령으로 분단되고, 얼마 되지 않아 남북의 독립국가 건설에 의해 분단은 고정되고 내전까지 일어났다. 남북 정권 모두 일본 통치를 완전히 부정하고 그것의 잔재의 근절을 강조했다. 대만의 경우는 조선에 비해 권력의 이관은 순조로웠지만, 국민정부가 중국의 내전에서 패배하고 대만으로 이전한 후에 구체제가 철저히 부정되었다. 이와 같이 전후에 일본, 조선, 대만의 각 정권은

구체제를 부정하고 탄생했기 때문에, 또 자기의 정당화를 위해 실태 이상으로 과거 체제와의 단절을 강조했다. 이와 같은 현실의 정치적 조건은 사회과학연구에도 영향을 미쳐, 戰前 사회와의 관련성을 탐구한다는 발상은 생겨나지 않고 전후의 개혁과 혁명, 건국 등의 의미만 강조되었다. 그래도 일본에서는 비교적 일찍 전전과 전후의 관련성을 생각하는 움직임이 나타났지만, 한국과 대만에서는 그와 같은 연구동향은 아직 초보적인 단계에 머물고 있다. 그러나 식민지 지배에 대한 이데올로기적 평가를 별도로 치면, 어떠한 근본적인 변혁도 역사적 규정성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다. 더욱이 일본의 식민지 지배가 현지 사회를 크게 변혁시키는 것이었음은 널리 인정되고 있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본 논문은 주로 두 세계대전 사이에 제국 본국 일본과 식민지의 무역 관계에 초점을 맞춰 자본주의의 발전이라는 시각에서 그들 사회의 변화를 시대에 따라 동태적으로 파악하고, 그 성격 변화의 의의를 역사적으로 고찰하려는 것이다. 역사적 실태를 고려하여 고찰에는 조선, 대만 외에 만주를 포함시키기로 한다.

II. 兩大戰間期の 동아시아

양대전간기 일본 및 조선, 기타 식민지를 둘러싼 경제관계에 관한 기존 연구의 가장 큰 약점 중의 하나는 국제적 관점의 결여이다. 다시 말하면 일본이나 조선의 사태를 세계사적인 차원에서 파악하려는 자세가 극히 약한 점이다. 대부분의 연구는 당해 대상사회의 분석, 또는 그곳에서의 정책을 연구하는 것이 대부분이고, 그러한 일본의 정책을 규정하는 일본과 식민지와의 상호관련까지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일본 이외의 세계적 조건은 거의 무시된 채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와 같은 약점에 기인하는 하나의 문제로서, 세계사적으로 본 일본 조선을 포함한 동아시아 지역사회의 특징을 충분히 파악하지 못한 점을 들 수 있다. 종래 많은 연구에서는 일본 제국주의의 지배 압박을 받고 있는 사회로서 당시의 조선과 중국을 같이 파악하고 있다. 그리고 중국 혁명의 과정에서 생겨난 ‘반식민지 반봉건사회’ ‘민족자본’ ‘매관자본’ 등의 개념이 양국의 역사적 조건의 차이를 충분히 음미하지 않은 채 도입되어, 다소의 수정은 가해져 있기는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그대로 사용되고 있다. 이들 연구에서는 당시의 조선·중국이 직면하고 있던 과제가 기본적으로 같았다는 인식 위에 입각해 있다. 과연 그랬을까? 우선 세계사적 관점에서 동아시아의 제국·지역의 위치를 거시적으로 살펴보는 것부터 시작하자.

동아시아 지역은 근대 세계 가운데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할까? 표 1은 동아시아의 각국·지역에 대해 통계를 얻을 수 있는 1870년대부터 현재까지 약 120년간의 무역액의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모두 당해년도 가격에 의한 무역 총액(수이출+수이입)으로, 미국 달러로 환산해서 표시하고 있다. 이 표로부터 여러 가지를 읽어낼 수 있다.

우선 제2차 세계대전 이전을 보자. 겨우 70년 사이에 일어난 상대적인 변화의 규모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이들 국가·지역간의 무역은 제1차 세계대전기에 급증하고, 1929년 후의 대공황기에 약간 감퇴한다는 점은 같지만, 그 외에는 차이점이 눈에 띈다. 첫째, 일본과 중국을 비교해보자. 1880년대 전반까지 일본은 중국의 1/4에 불과했다. 1890년대부터 중국도 증가하기 시작하지

만, 일본이 보다 급속하게 늘어나 1911년에 역전했다. 20년대 일본은 서서히 중국과 차이를 벌리고 있었지만, 30년대 초 공황 이후는 더욱 대조적인 추세를 보인다. 일본은 급속하게 회복하지만, 중국은 격감한 후에 그 수준에서 정체하고 있다. 이것은 만주를 빼앗겨 그 무역액이 없어진 때문이기도 하지만 중국 關内の 무역액 자체도 감소하고 있다.

둘째, 일본에 영유되어 있던 조선과 대만을 살펴보자. 그 특징은 무역액의 증가율이 매우 높다는 점이다. 1886~1900년 평균으로 대만은 중국의 5.6%, 조선은 겨우 2.8%에 불과했다. 하지만 그 후 조선, 대만 무역은 급격히 팽창하여 일중전쟁 전인 1936년 양 지역의 합계 무역액은 만주를 제외한 중국 關内の 그것을 능가해 버렸다. 인구규모의 격차를 고려하면, 이것은 극히 커다란 특징이라고 할 것이다. 표 2는 인구 1인당 무역액인데, 1900년은 일본 5.5달러, 중국 0.7달러, 조선 0.7달러, 대만 6.5달러로, 대만이 당초부터 대외교역과 깊이 결합된 사회임을 보여주고 있다. 그 1인당 금액이 1939년에는 일본 34.2달러, 중국 0.6달러, 조선 27.3달러, 대만 44.1달러가 되었다. 중국의 정체와 식민지의 증대 모습이 극히 대조적이다. 같은 해 조선은 중국의 무려 45.5배, 일본의 79.8%까지 접근해 있다.

셋째, 동아시아 지역이 세계무역 전체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살펴보자. 19세기 이 지역의 무역액은 2~2.7% 정도였다. 그러나 제1차 세계대전을 경과함으로써 그것은 6.7%대로 상승했다. 그리고 1930년대 초에 한 때 저하했지만 38년에는 8.6%에 이르렀다¹⁾. 다각적 무역 결재망의 붕괴로 인한 세계무역 전체의 수축으로 인해 동아시아 지역의 무역의 비율이 명목적으로 올라간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양대전기간 특히 30년대에 일본을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 지역의 무역이 경이적으로 팽창하고 있었음은 분명하다.

그러면 제2차 세계대전 후로 눈을 돌려보자. 북조선은 대외 경제관계가 극히 적기 때문에 여기서는 다루지 않는다. 제2차 세계대전으로부터의 회복은 일본이 가장 빨라 1950년대 후반부터 일관된 증가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주지하는 바와 같이 NICs의 대표인 대만과 한국이 60년대 후반부터 폭발적인 팽창을 시작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계속 거의 변화가 없었던 중국이 70년대 후반부터 이 또한 급팽창하게 되었다. 90년 시점에서 한국, 대만, 중국의 각 무역액은 거의 같다. 인구규모를 감안하면 각국의 특징이 나타난다. 1990년 인구 1인당 무역액은 일본 4,221달러, 중국 101달러, 한국 3,099달러, 대만 5,991달러이다. 상호 비율이 36년의 그것과 너무나 비슷한 데 놀라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이 지역의 무역액이 세계무역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대만, 한국의 NICs화와 중국의 개혁개방정책이 전개되고 일본을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 지역의 경제력이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은 1980년대에 간신히 10%대에 달했던 것이다.

마지막으로, 동아시아 지역의 무역 분석을 총괄하는 의미에서 각국·지역의 무역액을 각각의 경제규모(‘국민경제’)와 비교해두자. 표 3은 선행연구가 추산한 국내총생산(GDP)에 대한 무역총액의 비율이다. 전자는 지역·시대에 따라 그 精度에 차이가 있지만, 대략적인 비교로서는 충

1) 필자의 구고에서는 1933년 이후의 세계무역액만 구 미국 달러로 표시했지만, 여기서 각 개별국가의 무역과 마찬가지로 모두 신 미국 달러로 계산했다.(堀和生, 《朝鮮工業化の史的分析》有斐閣 1995년 제1장 참조). 1930년대말 동아시아 지역의 무역이 전 세계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9% 남짓이며, 전후에는 1970년대의 그것에 해당한다.

또 일중전쟁 이후 중국 무역액의 미국 달러 표시에 대해서는 해명되지 않은 문제가 있지만 여기서는 그 판단은 보류한다. 鄭友揆, <支那戰時入超と對外爲替>(滿鐵調査部 편, 《支那國際收支論叢》日本評論社 1941년) 참조.

분하다. 제2차 세계대전 이전 시기에서 주목할 점은 1930년대가 되어도 대외무역이 중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극히 낮다는 것이다. 그에 비해서 대만과 조선은 극히 높다. 대만이 처음부터 높았던 것은 島外교역의 비중이 컸기 때문이지만 식민지기에 더욱 높아진다. 조선의 경우는 처음이 낮았기 때문에 식민지기의 신장율이 더욱 현저하다. 그리고 1938년에는 대만 68.8%, 조선 65.1%로 일본의 31.2%보다 상당히 높아졌다. 다시 말하면 이들 식민지는 본국인 일본보다 대외무역 의존도가 높다는 것이다. 눈을 다시 제2차 세계대전 후로 돌리면 1960년대 말 대만, 한국의 NICs화와 함께 이 극단적인 대외무역 의존적 특징이 다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무역 총액이라는 한정된 지표이지만 약 120년간의 추이와 비교검토하면 중요한 문제점이 떠오른다. 첫째, 1960년대 후반 이후의 일본, NICs의 무역 증가가 극히 급격하고 커다란 변화라고 파악한다면 그에 필적하는 신장율의 속도와 양적 비율을 갖고 있던 양대전간기 동아시아 제국·지역의 대외관계의 변화에 대해서도 상세한 해명이 요구되고 있다고 하겠다. 둘째, 종래 흔히 식민지·반식민지라고 함께 논의되는 경우가 많았던 조선·대만과 중국은 대외무역이라는 측면에서 봐서 오히려 전혀 이질적인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 점이다. 셋째, 그 중에서 조선은 무역액을 급팽창시켜 강한 대외의존성을 갖게 되었다. 그리고 넷째, 이 대전간기에 형성된 대외관계의 유형이 제2차 세계대전 후에도 유사한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도 명확해졌다. 이 때문에 양대전간기에 형성된 사회의 구조적 특질이 제2차 세계대전 후 각국의 재출발과 재편성을 내적으로 상당히 강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상정이 나오는 것이다.

III. 일본 제국주의의 경제적 특징

1930년대 세계공황 이후, 다각적 결제망이 붕괴되고 블록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세계무역은 크게 축소되었다. 그런 가운데 일본의 무역은 그들 추세와는 달리 예외적인 양상을 띠었다. 무역은 이미 33년부터 증가로 돌아서고 엔 환율 하락을 호조건으로 하여 급속하게 무역을 신장시켜 나갔다. 세계 무역 전체가 크게 수축되어 있는 가운데 일본 제품의 세계시장 진출은 현저했다. 이전부터 일본 제품이 수출되고 있던 구 시장뿐 아니라 중남미와 서아시아, 아프리카 같은 새로운 시장에도 일본 제품은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나갔다. 이와 같은 일본의 집중호우식 수출은 국제적인 무역질서를 파괴시키는 것이라고 열강들로부터 강하게 비판을 받았다. 이것은 일본자본주의 발전 과정에서 보면 당해기 일본의 섬유제품·잡화류 등의 경공업 제품이 국제경쟁력을 크게 신장시키고 있었음을 보여준다.²⁾

그러나 1930년대 일본자본주의의 성격을 파악하는 데는 이와 같은 세계시장으로의 진출과는 다른 또 하나의 중요한 국면이 존재했음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日本帝國圈의 존재이다. 30년대 일본의 대 중국침략으로 일본제국권은 양적으로 크게 팽창했을 뿐 아니라 일본자본주의

2) 泉武夫, <1930年代世界市場における日英綿業の確執>(專修大學社會科學研究所 《社會科學年報》 27호 1993년) 및 동, <戰間期世界綿布市場における日英綿業の確執についての序章-1920年代->(《專修經濟學論集》 27권 2호 1993년 3월), 富永憲生, 《金輸出再禁止後の日本經濟の躍進と高成長産業》 溪水社 1999년).

자체의 재편성에 의해 기존의 식민지인 조선, 대만까지도 포함해서 질적으로 변화하고 있었다. 이 일본제국권의 확대는 일본자본주의의 성격을 변화시킬 정도로 커다란 임팩트를 주었다. 제1장에서 살펴본 동아시아 무역의 특이한 팽창은 실은 이 일본과 식민지와의 무역이었던 것이다.

그러면 이 일본제국의 팽창이란 것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당시 열강의 대 식민지 무역과 비교해보자. 영국 식민지는 협의의 식민지이다.³⁾ 일본의 식민지는 1895년 이후의 대만과 1910년 이후의 조선, 1907년 이후의 관동주, 만주 지역, 1932년 이후의 만주국을 가리킨다. 31년 이전의 만주는 엄밀하게는 법적으로 식민지가 아니어서, 일본이 완전히 주권을 갖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일본과 만주 지역은 통상적인 국제무역이 아니라는 의미에서 일본의 제국권에 포함시켰다⁴⁾.

1930년대 열강의 블록화가 진행되었다고 하지만, 수출과 수입은 그 양상이 다르다. 수입에서는 식민지권의 의의가 한결같이 높아졌다. 영국은 30년대 초 공황의 영향을 가장 강하게 받았는데, 오타와회의 이후 블록화 정책을 추진하여 외국으로부터의 농산물 수입을 제국 내로 교체함으로써 제국 내의 결함을 한층 더 강화시켜 나갔다. 이 영제국의 블록화에 의해 수출이 신장된 것은 영국 본국이 아니라 오로지 자치령이었지만, 식민지도 대 본국 농산물·1차산업 제품 수출을 증가시켰다.⁵⁾ 그 때문에 식민지의 대 영국 수출은 34년부터 급증하여 30년대 말에는 20년대 수준을 회복했다. 프랑스의 경우도 1928년 '식민지관세법'에 의한 특혜관세제도와 34년 12월부터의 프랑스 본국·해외영토경제회의 등에 의해 점차 제국권 내의 결함 강화가 도모되었다. 특혜관세정책에 의해 식민지로부터의 수입은 급증하여, 30년대 후반에는 파운드 표시로 20년대를 6할 정도 상회하는 액수에 달했다.⁶⁾ 일본의 대 식민지 수입은 영국, 프랑스와 마찬가지로 1933년부터 일관해서 증가하고 있다.

이와 같이 1930년대 열강들은 식민지·종속 지역으로부터의 농산물·1차산업 제품 수입의 증가를 도모함으로써 제국 내 혹은 특별한 종속관계를 가지고 있는 지역과의 경제적 유대를 강화하는 공통적인 동향을 보였다. 38년 각국의 대 식민지 수입의 비율은 영국이 14.8%, 프랑스가 27.1%인데 비해서 일본은 38.5%로 각별하게 높다. 그러나 그와 같은 일본의 높은 대 식민지 의존도도 제국 내에서의 자원 자급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면에서 자치국을 포함한 영제국 블록에 크게 의존한 것이었음은 名和統一의 三環節論이 강조한 바였다.⁷⁾

여기서는 일본의 대 식민지 수출의 급증이라는 측면에 주목하고자 한다. 그림 1은 영·프·일의 대 식민지 수출액을 영국의 파운드화로 표시한 것이다. 1929년 공황으로 인한 수축이 심했던 영국과 큰 타격이 없었던 일·프, 30년대 급격하게 증가하는 일본과 거의 증가하지 않는 영·프

3) 20세기 전반의 영제국령은 영국 본국 이외에 자치령과 식민지로 구성되어 있다. 자치령이란 1926년 제국회의에서 독립적인 자주권을 인정받아 31년 웨스터민스터 헌장에 의해 법제화된 캐나다, 뉴질랜드, 남아 연방, 오스트레일리아, 뉴핀들랜드, 아일랜드 자유국 등 6개국. 여기서 말하는 식민지란 영제국령에서 상기의 6개국을 뺀 것.

4) 본고에서는 외지식민지(조선·대만)와 만주국의 교역을 구별하지 않는다는 입장에서 이출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모두 수출입으로 한다.

5) 原田聖二 <兩大戰間に於けるイギリス帝國關係の変貌>(矢口孝次郎 편, <イギリス帝國經濟史の研究> 東洋經濟新報社 1974년).

6) 菊地孝美 <フランス對外經濟關係の研究> 八朔社 1996년.

7) 名和統一 <日本における原料問題と對外貿易-日本經濟國際依存度の分析->(동 <日本紡績業と原綿問題研究> 大同書院 1937년).

라는 2개의 대조적인 추세를 읽어낼 수 있다. 수출은 모든 열강이 특별한 관계를 가진 식민지로부터의 수입을 증가시키고 있던 추세와 완전히 다르다.

영국과 프랑스 모두 특혜관세를 바탕으로 한 블록화의 진전에도 불구하고 본국의 대 식민지 수출을 양적으로 증가시킬 수 없었다. 또 양국의 대 식민지 수출에는 질적인 변화도 존재하지 않는다. 영국에서는 20년대 본국 내에서 발달한 신흥공업(인조 견사, 합성염료, 자동차, 타이어 제조 등)이 국내 시장 중심이었기 때문에, 이들 산업의 발전이 제국 내 시장에서의 의존을 높이지는 않았다. 또 프랑스에서는 20년대 중화학공업이 신장되었지만 30년대에도 섬유제품 중심의 수출구조는 변화가 없었다. 다시 말하면 영국과 프랑스에서는 20년대의 본국 내에서의 새로운 자본주의의 발전이 30년대 제국 내 블록 결합의 강화로 연결되지 않았다.⁸⁾

수출부터 보자면 일본은 이들 영·프 제국과 매우 상이한 추세를 보여준다. 30년대 영국, 프랑스의 대 식민지 수출이 전혀 늘어나지 않는 데 비해서, 일본의 대 식민지 수출은 32년 이후 일관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후반에는 가속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중국 점령지와의 무역까지 포함시키면 37년 이후 일본 제국 내의 무역 팽창은 더욱 현저하다. 또 주목해야 할 점은 일중전쟁 이후 외화를 획득할 수 있는 제3국 수출을 증가시키기 위해 円圈으로의 수출이 억제된 37년 이후도 제국 내 수출 신장은 실제로는 억제되지 않았다. 그리고 말할 필요도 없지만 조선은 이러한 일본의 대 식민지 수출의 중심이었다.

일본의 대 식민지 수출은 20년대 프랑스보다 적으며, 영국의 1/3이었다. 그러던 것이 일본의 급격한 증가에 의해 35년에 프랑스, 38년에는 세계 최대의 식민지 제국인 영국을 실제 액수에서 능가했다. 각 열강의 수출 중에서 대 식민지의 비율을 살펴보면, 1938년 영국 20.2%, 프랑스 27.4%에 비해 일본은 49.1%에 달했다. 다시 말하면 일본 경제의 대외관계의 가장 현저한 특징은 20년대와 다른 30년대의 대 식민지 수출의 일관된 증가였다. 다시 말하면, 경제 유대의 규모에서 일본은 특정한 통치권을 가진 식민지에 가장 강하게 의존하는 식민지 제국이 되었던 것이다.

그러면 다음으로 식민지 쪽으로 관점을 바꾸어 일본 식민지의 특징에 대해 검토해 보자. 우선 그림-2, 그림-3은 각 식민지의 수출입 중에서 일본이 차지하는 비율의 추이다. 현저한 본국 무역에의 포섭이 일본 식민지의 특징이다. 1910년대말 일본으로의 수출을 보면 대만은 80%를 넘었고, 조선은 90%대에 달한다. 식민지 상호의 무역을 포함한 대 일본 제국권 무역을 보면 조선은 20년대부터, 대만은 30년대부터 90%를 넘어, 조선과 대만 모두 30년대 후반에는 일본 제국권에 거의 완전히 포섭되었음을 보여준다. 만주의 대 일본 수출은 20년대는 30% 전후인데, 만주국을 창설한 이후부터 급속하게 상승하다.

수입에서는 일본 및 일본 제국 이외의 비율이 비교적 높다. 그래도 30년대 후반에는 조선, 대만, 그리고 말년에는 만주도 90%에 달한다. 만주의 수입은 20년대에 40% 전후였지만, 만주국 건국 이후부터 급격한 성장을 보여주고 있어서 일본에의 포섭이 극적으로 진행되었음을 보여준다.

이들 식민지의 본국 무역의 비율을 영·프와 비교하면, 그 차이는 극히 현저하다. 영국 식민지의 경우 1930년대 인도는 수출에서 30% 전후, 수입은 30~40%이며, 그 밖의 식민지는 수출에서 29~37%, 수입은 23~27%에서 추이하고 있다.⁹⁾ 프랑스 식민지는 일반적으로 영국 식민지보다

8) 菊地孝美 전게서, 原田聖二 전계논문, 山本和人《戰後世界貿易秩序の形成》(ミネルヴァ書房, 1999년) 제3장 참조.

9) 山本和人《戰後世界貿易秩序の形成》(ミネルヴァ書房, 1999년).

본국 무역의 비율이 높다고 일컬어진다. 알제리가 가장 높아서 38년 수출에서 84%, 수입에서 75%이며, 튀니지가 56%와 62%, 모로코가 45%와 35%, 인도차이나가 48%와 52%이다.¹⁰⁾ 비교적 커다란 식민지 가운데 알제리가 가장 강하게 본국과 결합되어 있지만, 조선과 대만은 본국의 비율이 그보다 더욱 높다. 결국 일본 본국 경제 및 일본 제국권에의 포섭 정도가 극단적으로 높은 것이 일본 식민지 경제의 또 하나의 커다란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장을 정리하면 양대전간기 일본은 대 식민지권, 즉 일본 제국 내에서의 무역을 급속하게 신장시켰다. 특히 수출의 증가는 현저해서, 1930년대 후반에는 일본은 영국·프랑스를 제치고 세계 최대의 식민지 의존형 제국주의·자본주의가 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것은 동시에 식민지 측에서 보자면 제국주의 본국에의 포섭 정도가 이상할 정도로 높아져 두터운 경제적인 유대에 의해 본국 경제와 강하게 결합되었음을 의미한다.

IV. 일본 제국 내의 경제 관계

앞에서 일본의 대 식민지 무역이 1930년대에 급격히 증가했음을 살펴보았고, 나아가 그것이 식민지의 배타적 포섭이었는지를 확인했다. 여기서는 그와 같은 제국 본국 일본과 식민지와의 폐쇄적 경제 결합의 내실을 검토하기로 한다.

그림-4는 일본의 총 무역 중에서 식민지 거래와 일반교역이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대 식민지 수출과 수입 모두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수출은 30년대 말에 대 일반 수출을 상회하여 6할에 달했다. 수입에서는 4할 수준이다.¹¹⁾ 수출의 과반을 제국 내 시장에 의존하고 있었던 것을 보면, 30년대 일본 경제가 부흥하고 더욱이 중화학공업에 구조변화를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식민지가 극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고 생각해야 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1930년대 대 식민지 수출이 정체되어 있던 영국과 프랑스에서는 그 무역 구조 자체에 커다란 변화가 없었다. 영국에서는 20년대 국내에서 발달한 신흥공업(인조 견사, 합성염료, 자동차, 타이어 제조 등)이 국내 시장 중심 산업이었기 때문에 제국 내 시장에서의 의존을 높이지는 않았다. 또 프랑스에서는 20년대 중화학공업이 신장되었지만, 30년대에도 섬유제품 중심의 수출구조는 변화되지 않았다. 이들 영국·프랑스 양국과 달리 대 식민지 수출을 급증시킨 일본은 그 무역 구조 자체가 급속하게 변화되었다.

일본의 주요한 세 식민지의 무역구성을 주요한 부문만 검토해보자. 그림-5와 같이 각 식민지의 일본으로의 수출(일본의 수입)의 추세에는 각각 특징이 있어서 단순한 식민지 무역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조선이 가장 크게 변화였다. 20년대에는 곡물(미곡과 대두)이 2/3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30년대에는 그 비율이 급격하게 저하하고 대조적으로 광물·금속이 급신장하고 있다. 후자는 석탄,

10) 菊地孝美 전게서.

11) 일본자본주의에 관한 대표적인 연구인 橋本壽朗(《大恐慌期の日本資本主義》 東京大學出版會 1984년)은 1930년대 일본의 對 일반 수출을 주축, 對 만주 수출을 副軸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지만, 조선·대만은 전혀 검토하지 않고, 분석대상은 일본 국내의 경제순환에만 한정되어 있다.

철광, 선·강철, 비철금속 등이다. 또 그림에는 신지 않았지만, 화학공업제품(유지·화학비료 등)도 급증하고 있다. 이것은 이미 밝혀지고 있듯이 30년대 조선개발정책에 의해 조선이 단순한 곡물생산지에서 공업을 매개로 한 원료·중간재의 공급지로 성격이 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¹²⁾

만주는 30년대에 들면 우선 석탄에 이어 선철이 증가하고 광산물의 신장이 눈부셨다. 그러나 한때는 280만 톤에 달했던 대일 석탄수출은 만주에서의 공업화의 진전에 따라 만주 내 소비가 늘어났기 때문에, 석탄의 증산에도 불구하고 급속하게 수출능력을 상실했다.¹³⁾ 30년대 제국 내 분업의 재편성은 급속하여, 일본은 만주 대신에 화북으로부터 450만 톤에 달하는 석탄을 수입하게 된다. 그 때문에 만주의 대일 수출은 30년대 후반이 되면 오히려 곡물과 원료 대두가 절대적으로도 상대적으로도 높아진다.

대만의 경우는 20년대부터 蓬萊米의 수출이 절대액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쌀을 중심으로 하는 곡물수출액은 증가하지만 비율에서는 30% 전후에서 추이한다. 오히려 대만의 대일 수출의 특징은 5~6할을 점하고 있는 식료품의 존재이다. 식료품에서는 설탕이 압도적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30년대말에도 당해 부문의 8할을 넘는다. 그 밖에 파인애플통조림과 차 등의 농산가공품도 점차 증가한다. 이 식료품과 곡물을 합하면 거의 8할에서 9할을 차지하고 있어서 다른 두 식민지와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 대만 농업의 생산성이 일본 제국 가운데에서 가장 높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농업기지 역할을 담당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자연적 조건이 농업생산에 가장 유리한 대만에서 농업 및 농산물가공업의 증산과 본국으로의 수출증가를 촉진하는 정책이 취해졌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세 식민지의 일본 수출을 살펴보면, 양적으로 급증하는 가운데 각 식민지의 조건에 따라 그 내용은 각 식민지마다 아주 달랐다. 지금까지의 통념으로는 식민지란 농업에서 본국의 식량공급지라는 이해가 강했다. 그러나 30년대 후반이 되면 각 식민지의 대일 수출 중에서 곡물이 차지하는 비율은 모두 3할 정도에 불과하다. 결국 제국이 식민지기에 실시한 산업 재편성의 목적은 일본에 필요한 것을 최대한 증산시켜 상품화시키는 것이므로, 그것을 농업 부문에만 한정시키는 것은 본래적으로 불합리하다. 본디 각 식민지의 자연적 사회적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각 식민지 당국의 산업경제정책은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으며 식민지 경제도 각각의 장점을 살려 다양화되었다.

다음으로 각 식민지의 일본으로부터의 수입(일본의 수출)에 대해 검토해보자. 그림-6과 같이 거시적으로 보면 섬유제품이 점차 저하하고, 역으로 기계금속류가 상승하는 경향이 있다.¹⁴⁾ 이 추세는 조선이 가장 선명하며 이어 만주, 그리고 대만이 가장 완만한 변화를 보여준다. 이것은 공업에 관련된 재편성의 진행 정도의 차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정도의 차이를 가지면서 각 식민지는 일본 경공업제품의 판매시장이라는 통념적인 이해와는 달리, 30년대가 되면 인프라 부문과 직접 생산 부문에서 사용되는 생산재의 대량 수입으로 경사해갔다. 30년대 초두에 일본의 기계무역은 대폭적인 出超로 바뀌지만, 그 수출지역은 거의가 식민지였다. 이와 같이 무역면에 나타난 변화는 제국 전체의 공업 고도화를 지향하는 분업 재편성에 의한 것으로, 일본

12) 堀和生 전개서 제1장 참조.

13) 山本有三 <<滿州國>> をめぐる對外經濟關係の展開>(동 편 <<滿州國>의研究> 京都大學人文科學研究所 1993년). 40년대에 석탄의 대일 수출은 60만 톤까지 저하되었다.

14) 섬유제품이란 일본의 무역분류의 8~10, 기계란 16분류를 말함. 각 식민지의 대일 수입에서 일본의 식료품 분류(3)도 여기의 섬유제품과 같은 추세를 보인다.

의 중화학공업화를 축으로 식민지의 공업화를 수반하면서 진행되어 갔다.¹⁵⁾

이와 같은 식민지 공업화에 의해 사회가 크게 변화한 식민지로서 조선을 들 수 있다. 조선에서는 1930년대에 한편으로는 大 전원개발에 의한 거대한 화학공업과 중공업이 흥기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일본 자본의 진출과 조선인 자본의 발흥에 의해 경공업이 대두했다. 조선 내에서의 경공업 생산은 높은 신장률을 보였다.¹⁶⁾

만주의 경우는 일본에 의한 대전원개발, 광산의 대개발, 중공업의 건설이 조선에 뒤지지 않는 규모로 단기간에 진행되었다. 그러나 만주는 본래 중국의 변경으로, 경공업품은 거의 중국 關內와 일본에서 들어오던 지역이었으므로 현지 공업의 발흥보다 경공업품의 수입에 의거하는 정도가 강했다. 만주에서는 30년대 중반 중국 제품의 유입이 정책적으로 차단된 진공상태 속에 제국 내 경공업품이 대량으로 흘러드는 輸入이 발생했다.¹⁷⁾

대만에서는 전술한 것처럼 농업 부문 자체가 가장 유리하고 또한 중요시되었던 식민지였기 때문에 식민지 공업화는 가장 느슨하게 진행되었다. 제당업을 제외하면 일본 자본의 진출도 조선·만주 정도는 아니었고, 현지 수요를 노린 경공업의 성립은 점차적으로 진행되었다. 예를 들면 면방직공업은 없고 직물업의 발달도 느슨하여, 식민지 말기조차도 수요 직물 중에서 대만산은 1/4를 넘지 않았다. 그러나 대만에서도 설탕의 개량 정제가 어느 정도 진척된 것과 과인에플 통조림업, 製茶 등 농가공업에서 대만인 자본도 포함하여 경공업이 늦은 속도이기는 하지만 형성되어 나갔다.

다시 말하면 1930년대 제국 내에서 일본에의 다양한 물자의 공급을 주요한 원동력으로 하여 각 식민지에서는 그들 대일 수출용 상업의 흥기가 대대적으로 도모되었고, 동시에 그것들을 지탱하는 현지 경공업도 발흥되고 있었다. 일본에 의한 본국으로의 물자동원은 각 식민지의 산업 경제에 광범위한 영향을 주어, 사회 전체의 재편성을 불가피하게 만들었던 것이다. 제국 내 분업이란 식민지와 일본의 관계가 주축이지만, 그것은 본국의 생산재 산업(기계·금속업)의 기반 확장을 초래하여, 일본 자본주의의 중공업을 중심으로 하는 구조적인 이행, 그 고도화에 크게 기여했다.

부차적으로는 식민지 사이의 무역도 증가하여 제국 내 분업은 자기 팽창해나갔다. 그 한 사례로서 만주와 조선의 물자 교역의 증가를 들기로 하자. 조선에게 만주는 일본 다음으로 중요한 무역대상지역이며, 특히 수입에서는 20년대부터 대폭적인 入超 상황이었다. 만주로부터의 수입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조의 수입이다. 이것은 조선이 대일 미곡 수출을 추진해나갈 때, 쌀 대신에 조선농민의 식량으로 삼을 목적으로 수입이 추진된 것이다. 그것은 20년대부터 시작되어, 30년대에는 대두와 합쳐 조선의 대 만주 수입의 7할을 차지하기에 이르렀다. 이 조와 쌀의 상품 連鎖環도 최종적으로 일본에 쌀을 공급하기 위한 제국 내 분업의 하나이다.

1930년대 조선·만주 사이의 경제관계의 변화는 그림에서 보이듯이 조선으로부터의 이상할 정도의 出超 구조가 형성되는 것이다. 조선의 수입이 구성상 커다란 변화가 보이지 않는 데 비해서,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수출은 전혀 새로운 사태였다.

15) 이와 같이 조선·만주에서는 기계 수출이 수출의 20%에 달하지만, 동남아시아의 식민지 지역에서의 비율은 대체로 수% 이하이다. 일본의 기계류가 전혀 국제경쟁력을 갖고 있지 않았음을 나타낸다.

16) 堀和生 전게서 제5·6장 참조.

17) 堀和生 <日本帝國の膨張と植民地工業化> 秋田茂, 籠谷直人 편 <<1930年代のアジア國際秩序>> 溪水社 2001년) 제3절 참조.

만주국에 의한 중국 關內로부터의 수입 차단정책으로 인하여 만주지역에 거대한 진공시장이 생겨났기 때문에 그것을 노리고 일본, 대만, 그리고 조선 생산품이 물밀듯이 유입되었다. 조선의 만주에 대한 거대한 출초는 그것의 일환이다. 그리고 조선의 경우의 특수성으로서 조선으로부터의 수출품이 조선에서의 식민지 공업화와 결부되어 있었던 점이 중요하다. 표-4와 같이 겨우 3년 사이에 조선의 수출품 구성이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조선산 제조업 제품이 증가하고 있는 것인데, 특히 섬유제품의 신장은 눈부시다. 이것은 다양한 자료·지표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경향이다. 이 시기 조선의 수출품 중에서 조선 내에서 생산한 물건의 비율은 급속하게 높아지고 있다.¹⁸⁾ 전형적인 사례를 들자면 30년대 중반 조선 내 면방직기업 4개사가 6개 공장의 가동을 개시하고 설비를 증가함으로써 계산상 조선 면포시장은 자급을 달성하고 수출로 나섰다.¹⁹⁾ 물론 고급 면포는 일본에서 수입하지만, 만주에 갑자기 인위적으로 창출된 粗布시장은 탄생 직후의 조선의 공장제 면방직포업에게 절호의 발전의 계기였다. 종래의 연구에서 30년대 조선 공업제품의 만주 수출은 깊이 연구된 바도 없었고, 그 역사적 의미는 무시되어 왔다.²⁰⁾ 그러나 일본 식민지시대의 방직업이 전후 한국에서 방직 산업의 기반이 되었기 때문에 30년대 식민지 공업화를 과소평가할 수 없다. 그리고 인접한 만주에서 경공업 제품 시장이 열린 데다가 거대한 건설사업으로 인한 호경기가 겹친 것은 初發期에 있었던 조선의 식민지 공업화에게 커다란 호조조건이었다. 만주가 새로이 식민지로 재편성되어 가는 것은 조선 사회의 공업화를 가속화시켰고, 전체로서 제국 내 분업이 심화되어 갔다.

본 장을 정리하면 1930년대 초두 일본이 만주사변을 일으켜 만주의 식민지화를 개시한 것은 일본 자본주의 및 일본 제국에게 커다란 역사적 선택이었다. 때를 같이 하여 진행된 금분위제의 최종적 붕괴와 일본의 저환율정책에 의해 일본자본주의는 불황에 허덕이는 국제 경제 중에서 예외적으로 일찌감치 회복세로 향한다. 이 시기에 일본자본주의가 중화학공업을 향해 구조변화를 이루어나간다는 사실은 널리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그 일본자본주의의 구조변화가 일본의 식민지 사회의 커다란 재편성을 야기시키고 있는 점, 또 식민지 사회의 경제변화가 역으로 일본의 구조변화를 촉진시키고 있는 점, 나아가 일본의 각 식민지 사회가 상호규정적으로 재편성을 한층 더 추진하고 있는 점 등에 대한 인식은 충분하지 않다. 일본자본주의의 중화학공업을 원동력으로 하여 제국 내 분업이 급속히 발전하고 제국 내 생산력이 현저하게 증대하여 결과적으로 동아시아 지역이 크게 변화해나갔다.

V. 해방후에의 규정성

18) 조선의 수출 絲·布帛류 중에서 조선산의 비율은 40년에 8할을 넘고 있었다.

19) 堀和生 전개서 제2장 참조.

20) Bruce Cumings "The origins and development of the Northeast Asian political economy", International Organization, Vol.38 No.1, Winter 1984. 김영호(《東アジア工業化と世界資本主義》 東洋經濟新報社 1988년, 239~240쪽)는 이 對 만주 수출에 주목한 커밍스의 견해에 대해 근거를 들지 않고 비판하고 있다.

1945년 일본의 패배와 일본 제국의 해체에 의해 일본의 식민지는 해방되었다. 이 시기를 전후한 두 시기에 대해서는 단절론과 연속론이 있어서 다양한 측면에서 논의되고 있다. 여기서는 전장까지의 고찰을 바탕으로 같은 무역의 측면에서 이 문제에 대해 검토해 보고자 한다.

제1장에서 개관한 것처럼 동아시아에서 각국 무역을 거시적으로 볼 경우 한국, 대만 등 동아시아 NICs가 무역액을 비약적으로 신장시켜 세계경제에 ‘충격’을 준 것은 1960년대말부터 70년대에 걸쳐서였다. 한국에서 공업화가 시작된 것은 제2차 5개년계획의 중반부터라는 것이 통설이다. 그러나 타국과의 비교를 포함하여 상세하게 살펴보면 다른 측면이 보인다.²¹⁾

일본과 조선(한국), 대만은 1945년 이전은 일본 제국 내에서 밀접한 무역관계를 갖고 있었다. 조선(한국), 대만에서는 대일 무역이 수출입의 90%를 넘을 정도로 극단적으로 본국에 집중되어 있었다. 그 때문에 일본 제국이 해체되자 한국, 대만은 최대의 무역 대상이 일시에 소멸하였다. 더욱이 한국의 경우는 남북분단과 50년 조선전쟁의 발발에 의해 정상적인 대외 경제관계는 더욱 철저하게 파괴되었다. 그리고 대만은 國共 내전과 국민정부의 대만 이전에 의해 중국 대륙과 무역관계가 차단되는 격변에 직면했다. 양국 무역의 戰前과의 단절성은 명료한 것처럼 보인다. 한국의 경우는 일본에 대한 식량과 중간재 수출이 완전히 없어졌기 때문에 수출 전체가 무시해도 좋을 정도로까지 저하되었다. 대만은 전전에 출초였던 것이 전후는 입초로 바뀌었고 무역액도 대략 1/3로 축소되어 버렸다. 그러나 양국 무역의 단절면만 강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한국의 경우 수출 부문이 붕괴되어 있는 점을 충분히 인정한 다음, 수입 부문이 상당한 액수를 유지하고 있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전계 표 1은 수출입이 합산되어 있는데, 전전의 무역이 전체 조선을 대상으로 한 것이고 수출이 제로에 가까운 것을 고려하면 50년대 한국의 수입 무역을 보잘 것 없는 수준이라고 파악하는 것은 일면적이다. 수출 능력의 상실과는 대조적으로 수입액은 상당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다. 물론 수출을 훨씬 상회하는 수입을 바쳐준 것은 한국·대만 모두 미국의 경제원조였음은 말할 필요도 없다. 그리고 이 원조수입에 의해 유지·육성된 경제기반을 출발점으로 하여 한국 무역은 다른 아시아 국가들에게는 없는 신장을 NICs화 이전 시기에 이미 시작하고 있었던 것이다.

전계 표-3과 같이 대만과 한국의 무역액이 국민경제의 규모[총생산(GNP)에 대한 무역 수출입액]와 비교해서 매우 크다는 양국의 특징은 60년대부터 시작되고 있었다. 이 증가하는 양국의 무역과 각각의 내적 관련을 검토해야 한다.

우선 1950년대의 한국 경제와 무역을 낮게 평가하는 통설은 동시기의 수입물자가 거의 소비재 뿐이고, 자본재가 적다는 점을 근거로 하고 있다. 그와 같은 인식은 올바른 것일까? 그림-7은 아시아 각국의 수입 중에서 차지하는 최종소비재의 비율의 추이를 나타내고 있다. 다시 말하면 소비재 중에서도 최종소비재와, 부가가치를 더할 수 있는 원료·중간재는 의미가 다르다고 생각해서 작성한 그림이다. 흥미로운 점은 한국은 조선전쟁 때에는 분명히 최종소비재가 6할에 달했지만, 휴전 직후부터 그 비율은 급속하게 저하되어 간다. 그리고 50년대 후반 이후는 한국도 일본이나 대만과 마찬가지로 최종소비재는 수입의 2할이라는 극히 낮은 수준에서 추이하고 있다. 이 비율은 인도네시아에서는 5할 정도이며, 보다 후발의 동남아시아 제국에서는 6~7할에 달한다.

21) 전후의 한국 무역에 대해서는 堀和生, <朝鮮・韓國と台湾の工業化-經濟の高度化と國民經濟->(植村泰夫·櫻谷勝美·堀和生 編, <東アジア經濟の軌跡> 青木書店 2001년) 및 동, <植民地の獨立と工業の再編成-台湾と韓國の事例->(中村哲 編, <東アジア資本主義の形成> 青木書店 1994년) 참조.

같은 사항을 逆 지표로 나타낸 것이 그림-8로서, 각국 수입 중에 원료·중간재가 차지하는 비율의 추이이다. 일본은 50년대 초부터 일관해서 7할 전후의 비율로 추이하지만, 대만과 한국은 그것을 15~20% 하회하는 수준에서 병행하여 추이한다. 이와 같이 최종소비재가 적고, 원료 중간재가 많다는 한국·대만의 수입의 특징은 남·동남아시아와 극히 선명한 대조를 보여주고 있다. 더욱이 한국·대만의 그와 같은 특징이 60년대 중반에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50년대 중반부터 이미 그렇게 되어 있었음에 주목해야 한다. 50년대의 수입품이 소비재 중심이었던 점을 가지고 동시기 한국의 산업 경제를 낮게 평가하는 통설은 수정되어야 한다. 50년대 한국의 원료 중간재의 대표인 원면은 한국 면방직업을 성립시키는 기반이었으며, 다음 시대에 수출 산업의 중심으로 성장해간다. 만약 한국 면방직업이 일본의 식민지 시대처럼 원료품을 한국산 면화에 집착했다면, 한국 면업이 수출 산업이 되는 일은 없었다. 한국은 일본 제국주의 시대의 불합리성을 원료의 국제가격경쟁 속에서 과감하게 전환했다고 평가해야 할 것이다.

수입 부문에서는 또 한 가지 한국과 대만에 공통되는 특징이 있다. 그림-9는 각국 수입 중에서 차지하는 기계부문의 비율의 추이이다. 이것에서 일본과 두 나라는 다르다. 일본은 전후 미국으로부터 많은 기술을 도입했지만, 기계 수입이 15%를 넘는 경우는 없었다. 그러나 대만과 한국에서는 기계 수입은 경향적으로 비율이 높아지고 있으며, 양국 모두 60년대 후반이 피크이다. 그 시점에서는 전체 수입의 4할 가까이가 기계수입인 것이다. 50년대 대만이 기계 수입에서 한국을 앞지르고 있다. 이것은 공업화에 관계되는 모든 지표에서 대만이 언제나 한국보다 앞선 사례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양국 모두 이 수입 기계의 압도적인 부분을 일본에서 수입하고 있다. 대만·한국에서 공업생산력이 수입한 기계·기술에 의존하고 있었음은 명료하다.

이상과 같은 수입 부문에서 한국·대만의 특징은 수출 부문에서도 다른 아시아 제국과 다른 특징을 초래한다. 그림-10은 각국 수출 중에서 차지하는 공업제품의 비율의 추이이다. 특별한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이 사이의 변화는 명료하다. 1950년대 말부터 우선 대만이, 이어 60년대 초두부터 한국의 수출 부문에서 공업제품이 점하는 비율이 극적으로 상승했다. 대만에서는 설탕과 쌀의 수출이 급감하고 경공업 제품의 수출로 대체되었다. 한국의 경우 50년대 수출 자체가 극히 적었지만, 그 시대의 광산물·해산물 수출에서 면제품을 중심으로 하는 경공업 제품 수출로 전환되어 간다. 중요한 점은 이 수출 상품의 공업제품화 추세는 이른바 정부에 의한 수출지향정책이 시작된 때보다, 조금이기는 하지만 분명히 선행하여 시작되고 있었던 점이다. 정책이 새로운 경제구조를 만들어내었다기보다 경제구조의 변화를 그들 정책이 가속·촉진시켰다고 생각해야 할 것이다.

설탕과 식물유지 등 1차 생산품 수출로 특화되어 가는 필리핀과, 공업제품의 수출로 향해가는 한국은 본래 출발점의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개발경제학자가 때때로 상정하는 것과 같은 필리핀과 한국의 경제발전의 역전 같은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다. ‘아시아·아프리카의 시대’ 불려지던 1950년대에 남·동남아시아와 한국·대만은 이미 동일한 경제구조 위에 서있었던 것이 아니었다.

남·동남아시아와 대만·한국의 진로의 차이를 더욱 촉진시켜 나갔던 국제조건의 하나로 미국·일본과의 관계를 들 수 있다. 전전과 비교하면 줄었다고는 하지만, 1950년대 대만의 무역액 제1위는 수출·수입 모두 일본이었다. 한편 한국에서는 50년대에 두 번 대일 무역이 중단된 적이 있듯이, 정책적으로 일본과 분리시키려는 힘이 작용했기 때문에 일본과의 관계는 양적으로

보잘 것 없는 것이었다. 그러나 한국의 수출이 증가하기 시작하는 50년대 말부터 일본의 비중은 급속하게 높아진다. 한국·대만 모두 일본과 미국의 비율이 가장 높아지는 것은 60년대 후반이다. 한국의 경우, 피크 때에는 수출·수입 모두 일본·미국 두 나라가 75%에 달했다. 이 극단적인 일본, 미국 경제와의 두터운 결합이야말로 한국·대만의 수출 주도 공업화가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NICs 성립 시기에 극히 중요한 조건이었다.

VI. 맺음말

본론은 무역이라는 경제관계의 검토를 통하여 兩大戰間期 동아시아 지역에서 일본을 중심으로 한 분업, 즉 자본주의적인 국제관계가 형성되어가고 있었다는 사실을 밝혔다. 그것은 일본제국의 팽창, 침략과 전쟁, 식민지 지배의 강화라는 과정과 겹쳐 있으며, 당해 식민지 사람들을 위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종종 그 사람들의 의도에 반하여 추진되었다.

주지하듯이 제2차 세계대전 후에 세계 경제는 미국을 중심으로 크게 재편성되었다. 그 가운데 동아시아는 사회주의 국가로서 자본주의적 국제관계에서 이탈한 중국이나 북한과, 미국과의 관계를 심화시켜나간 일본, 한국, 대만 등으로 분열되었다. 사회주의 국가의 역사적 평가는 제쳐두고, 후자의 3개국은 그 후 모두 미국 시장에 공업제품을 대량으로 수출하는 가운데 경제의 고도 성장을 달성해갔다. 이와 같은 일본의 선진 자본주의국화와 한국·대만의 NICs(신흥공업국군)화에는 미국의 거대한 업소버시장의 형성, 미국·유럽으로부터의 기술이전의 진행, IMF(국제통화기금)이나 GATT(관세무역일반협정)와 같은 국제시장질서의 성립이라는 전후적 조건이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했음이 분명하다. 이것들은 양대전간기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조건이며, 그 시기의 국제관계 하에서는 동아시아의 안정적인 경제발전이 곤란했던 중요한 요인이었다.

그러나 거대한 미국시장의 등장과 기술이전의 가능성이라는 일반적인 조건이라면 전후 어느 나라에나 있었으니, 왜 동아시아의 특정 국가들만이 그들 조건을 성공적으로 향수할 수 있었는 가라는 다음 의문이 일어난다. 그리고 그것은 대전 이전에 동아시아에서 형성되어 있었던 역사적 조건 속에서 추구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본론에서 밝힌 것과 같은 동아시아의 帝國 내에서 중화학공업에 의한 생산재 생산부문을 가지게 된 일본자본주의는 전후 일본이 구미로부터 기술도입을 통하여 더욱 고도로 발전하여, 미국으로 공업제품 수출을 하면서 한국·대만에 생산재를 제공하게끔 대외관계를 전환시켰다. 일본제국에 완전히 편입된 식민지 하에서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의 형성이 진행되었던 한국·대만은 해방 후는 독립국으로서 수입 대체를 도모하고, 동시에 일본으로부터 생산재를 수입하면서 제조 공업제품을 대량으로 수출하는, 무역의존도가 극히 높은 경제로 전환되어나갔다. 이와 같은 일본 및 한국·대만의 사태는 그 어느 것이나 모두 전전부터의 역사적 조건과 전후의 共時的 국제조건의 조합 속에서 성립되어 온 것이다.

〈표 1〉 동아시아 지역의 무역액 추이 (단위: 100만 미국 달러, %)

	일본	중국	만주	조선	대만	동아시아 합계	세계무역	동아시아 비율
1874	43	202			8	253		
1876-80	53	210		1	11	275	13,070	2.1
1881-85	57	201		2	12	272	14,460	1.9
1886-90	91	238		4	13	345	14,850	2.3
1891-95	120	254		5	12	391	15,760	2.5
1896-00	201	281		8	16	507	18,500	2.7
1901-05	314	375		15	21	724	22,850	3.2
1906-10	466	505		26	38	1,035	29,970	3.5
1911-13	669	629		44	59	1,400	38,240	3.7
1914	685	620		49	55	1,408		
1916	1,087	789		66	89	2,031		
1918	2,122	1,311		163	125	3,721		
1920	2,551	1,617		221	193	4,582	65,800	7.0
1922	2,053	1,328		226	133	3,739	45,300	8.3
1924	2,249	1,450		268	162	4,129	56,828	7.3
1926	2,642	1,511		345	204	4,701	62,037	7.6
1928	2,532	1,553		363	204	4,652	67,380	6.9
1930	2,030	1,014		313	202	3,559	55,552	6.4
1932	1,132	524	201	178	114	2,149	26,853	8.0
1934	1,798	529	340	291	154	3,111	39,117	8.0
1936	2,211	490	370	392	197	3,660	43,451	8.4
1938	2,352	347	568	552	235	4,052	46,931	8.6
1940	2,360	242	564	582	246	3,995		
	일본	중국	북조선	한국	대만	동아시아 합계	세계무역	동아시아 비율
1954	4,028	2,440		268	304	7,040	173,400	4.1
1956	5,731	3,210	140	411	312	9,804	211,000	4.6
1958	5,910	3,870	290	395	382	10,847	219,900	4.9
1960	8,546	3,810	320	376	461	13,513	263,500	5.1
1962	10,553	2,660	353	483	522	14,570	291,200	5.0
1964	14,611	3,470	416	524	861	19,881	354,300	5.6
1966	19,299	4,620	463	967	1,158	26,507	419,900	6.3
1968	25,959	4,050	583	1,918	1,692	34,202	491,000	7.0
1970	38,199	4,590	806	2,819	3,005	49,419	639,500	7.7
1972	52,062	6,300	1,039	4,146	5,502	69,049	842,520	8.2
1974	117,646	14,570	1,980	11,492	12,605	158,294	1,693,106	9.3
1976	132,024	13,430	1,487	15,945	15,765	178,651	2,007,096	8.9
1978	176,886	20,640	1,792	27,683	23,714	250,715	2,656,809	9.4
1980	270,335	38,140	3,431	39,797	39,544	391,246	4,038,786	9.7
1982	270,762	41,610	2,835	46,104	41,092	402,403	3,729,538	10.8
1984	306,617	53,550	2,993	59,876	52,415	475,451	3,885,223	12.2
1986	335,559	73,850	3,371	66,298	64,014	543,092	4,309,379	12.6
1988	452,271	102,790	4,536	112,507	110,241	782,345	5,734,920	13.6
1990	521,747	115,440	4,777	134,859	121,930	893,977	7,156,976	12.5

출전

日本日本銀行編 《明治以降本邦主要經濟統計》 1966年, 溝口敏行・梅村又次編 《旧日本植民地經濟統計》 東洋經濟新報社, 1988년, 總務廳編 《日本統計年鑑》各年版。
 中國Hsian Liang lin, *CHINA'S FOREIGN TRADE STATISTICS*, 1864-1949,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74, 國家統計局編 《中國統計年鑒》 中國統計出版社, 1999년판, 鄭友揆 《中國的對外貿易和工業發展》 上海社會科學院, 1988년。
 台灣 黃福才 《台灣商業史》 江西人民出版社, 1990년, 向壽一
 <台灣植民地化と通貨金融制度改革>(《金融經濟》 171号, 1978年8月), 行政長官公署編
 《台灣省五十一年來統計提要》 1946年, Council for Economic Planning and Development, *Taiwan Statistical Data Book*, 1990, 行政院經濟建設委員會編 《自由中國之工業》 77卷1期, 1992年。
 朝鮮崔柳吉 <韓國の貿易動向 1877~1911年> (《アジア經濟》 15卷1号, 1974年1月), 朝鮮總督府編
 《朝鮮貿易年表》 各年版, 李載沆編 《韓國의 上공업 백년》(한국어) 한국상공회의소, 1985년, 大韓統計協會編
 《主要經濟指標》 1992年版, 黃義珪 《北韓經濟論》 나남(한국어), 1992年, 日本貿易振興會編
 《北朝鮮の經濟と貿易の展望》 1991年版。
 世界 F.ヒルガート, 山口和男 외 譯 《工業化の世界史》 ミネルヴァ書房, 1979年, 宮崎犀一 외
 編《近代國際經濟要覽》 東京大學出版會, 1981年, 國際連合統計局編《貿易統計年鑑》 各年版。

備考

- (1) 日本貿易에는 대 식민지, 대 만주 등을 포함한다.
- (2) 1895년 이전의 대만무역은 중국에 중복 계산되어 있다.
- (3) 1932년 6월 이후 중국 무역에 만주는 포함되지 않음.
- (4) 1970년 이전의 세계 무역에는 사회주의 국가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표 2〉 동아시아지역의 1인당 무역액 (단위: 미국 달러)

	일본	중국	조선	대만	
1896	3.5	0.6	0.5	3.9	1896
1898	5.0	0.6	0.7	7.0	1898
1900	5.5	0.7	0.7	6.5	1900
1902	5.9	0.8	0.8	6.8	1902
1904	7.3	0.9	1.2	7.3	1904
1906	9.1	1.2	1.3	8.8	1906
1908	8.9	1.0	1.8	11.0	1908
1910	10.9	1.3	1.9	16.3	1910
1912	13.0	1.4	2.7	18.1	1912
1914	13.2	1.4	3.0	15.5	1914
1916	20.3	1.8	4.0	24.7	1916
1918	38.8	3.0	9.5	34.1	1918
1920	46.0	3.7	12.6	51.3	1920
1922	36.1	3.0	12.5	34.0	1922
1924	38.5	3.3	14.5	40.2	1924
1926	43.9	3.4	18.1	48.1	1926
1928	40.8	3.5	18.5	46.0	1928
1930	31.8	2.3	15.5	43.2	1930
1932	17.2	1.2	8.5	23.1	1932
1934	26.6	1.2	13.5	29.6	1934
1936	31.8	1.1	17.6	36.1	1936
1938	33.3	0.8	24.2	40.8	1938
1939	34.2	0.6	27.3	44.1	1939
1940	33.1	0.5	24.6	40.4	1940
1941	27.7	0.6	23.6	34.4	1941
	일본	중국	한국	대만	
1954	46	4	12	35	1954
1956	64	5	20	33	1956
1958	64	6	18	38	1958
1960	91	6	15	43	1960
1962	111	4	18	45	1962
1964	150	5	19	70	1964
1966	195	6	33	89	1966
1968	256	5	62	124	1968
1970	368	6	90	205	1970
1972	484	7	124	360	1972
1974	1,064	16	331	795	1974
1976	1,167	14	445	955	1976
1978	1,536	21	749	1,384	1978
1980	2,309	39	1,063	2,221	1980
1982	2,281	41	1,172	2,226	1982
1984	2,549	51	1,482	2,757	1984
1986	2,758	69	1,610	3,290	1986
1988	3,683	93	2,680	5,539	1988
1990	4,221	101	3,099	5,991	1990

비고 인구 통계가 없는 나라, 시대의 인구는 추산.

〈표 3〉 국내 총생산에 대한 무역액 비율

	일본	조선	대만	중국
1904	22.5		37.8	
1906	25.5		38.3	
1908	22.4		41.8	
1910	26.9		49.1	
1912	27.4	16.6	54.8	
1914	28.8	17.8	49.0	
1916	35.0	21.6	61.7	
1918	34.7	25.4	54.0	
1920	32.1	25.5	55.1	
1922	27.4	29.8	52.8	
1924	34.2	34.7	61.4	
1926	35.1	38.4	62.9	
1928	32.8	41.3	56.6	
1930	27.9	41.8	58.3	
1932	29.3	43.9	58.8	9.3
1934	35.7	51.8	66.5	8.7
1936	39.4	54.6	69.0	6.4
1938	31.2	65.1	68.8	
	일본	한국	대만	중국
1954		9.1	18.9	
1956	21.9	14.1	22.5	
1958	18.4	10.2	21.1	
1960	19.2	10.4	26.8	
1962	17.3	19.7	27.1	
1964	17.8	20.3	33.9	
1966	18.2	27.7	36.8	
1968	17.6	36.5	39.9	
1970	18.7	37.0	53.1	
1972	17.4	39.3	69.7	
1974	25.5	72.5	87.2	
1976	23.5	54.7	84.6	
1978	18.2	55.1	88.4	9.9
1980	25.6	69.0	95.5	12.8
1982	24.9	63.4	84.2	14.9
1984	24.4	68.2	88.6	17.3
1986	17.2	61.1	84.9	26.6
1988	15.9	60.1	90.1	27.3
1990	17.7	55.9	77.6	3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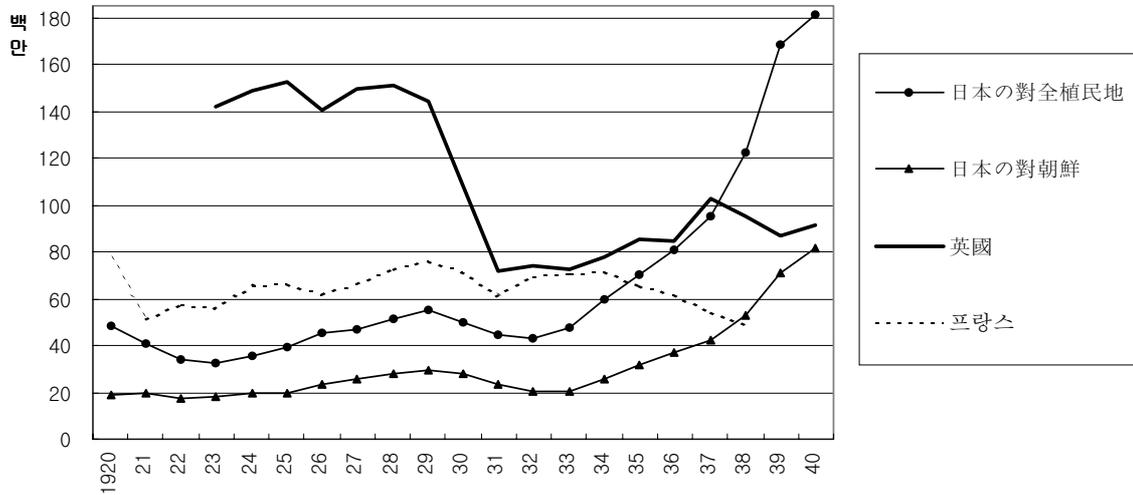
출전 표 1의 각 문헌, 巫寶三 《中國國民所得》 中華書局, 1947年, 韓國內務部統計局·經濟企畫院編 《韓國統計年鑑》 各年版。

비고 한국의 1971년까지는 요소비용, 72년 이후는 시장 가격 표시.

〈표 4〉 만주의 조선과의 무역 (단위: 1000 만주국폐 원)

		1935	36	37	1935	36	37
생동물(生動物)		15	29	42	80	56	351
식료품 및 기호품	동물성	4	10	16	1,813	2,918	5,223
	식물성	9,681	20,545	15,374	7,203	6,241	6,302
	기타	0	69	0	9	8	3
	계	9,685	20,624	15,389	9,025	9,167	11,528
원료품	동물성	17	29	57	188	338	526
	식물성	9,839	13,436	11,148	3,154	3,220	3,606
	광물성	5,756	5,204	5,554	201	296	658
	기타	188	274	543	41	63	103
	계	15,799	18,942	17,303	3,583	3,917	4,892
원료용 제품	동물성	30	21	108	165	330	254
	식물성	3,939	2,334	1,811	1,127	1,633	2,325
	광물성	923	3,500	4,129	410	786	1,772
	기타	0	0	44	50	134	262
	계	4,892	5,854	6,092	1,752	2,882	4,613
제조품	방직공업품	109	119	288	1,899	3,443	10,221
	화학공업품	448	442	495	1,499	1,786	2,959
	금속공업품	59	0	5	1,243	2,210	924
	기타	67	103	153	2,221	2,960	2,724
	계	682	664	941	6,862	10,399	16,829
기타 잡품		404	370	319	980	885	817
수출 총액		31,477	46,482	40,086	22,283	27,306	39,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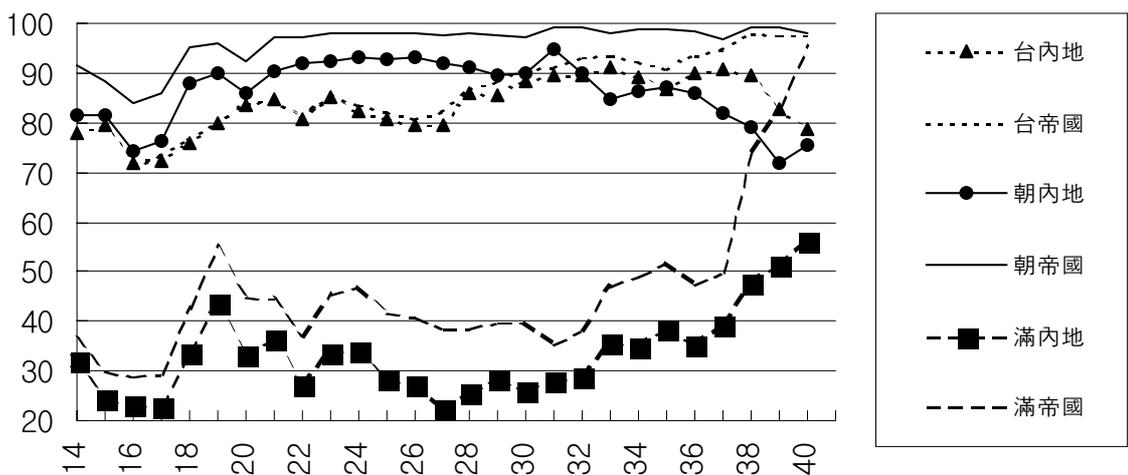
<그림 1> 일본 영국 프랑스의 대 식민지 수출(단위 : 영국 파운드)



출전 : 그림 1 의 각 문헌, 南滿洲鐵道株式會社編 《北支那貿易年報》 滿洲國經濟部編 《滿洲國外國貿易統計年報》 各年版, 菊池孝美 《フランス對外經濟關係の研究》 八朔社 1996年
 The Statistical Office of the Customs and Excise Departments. Annual Statement of the Trade of the United Kingdom
 Board of Trade, Great Britain. Statistical Abstract for the United Kingdom
 Board of Trade, Great Britain. Statistical Abstract for the United Kingdom
 Stationery Office. Annual Abstract of Statistic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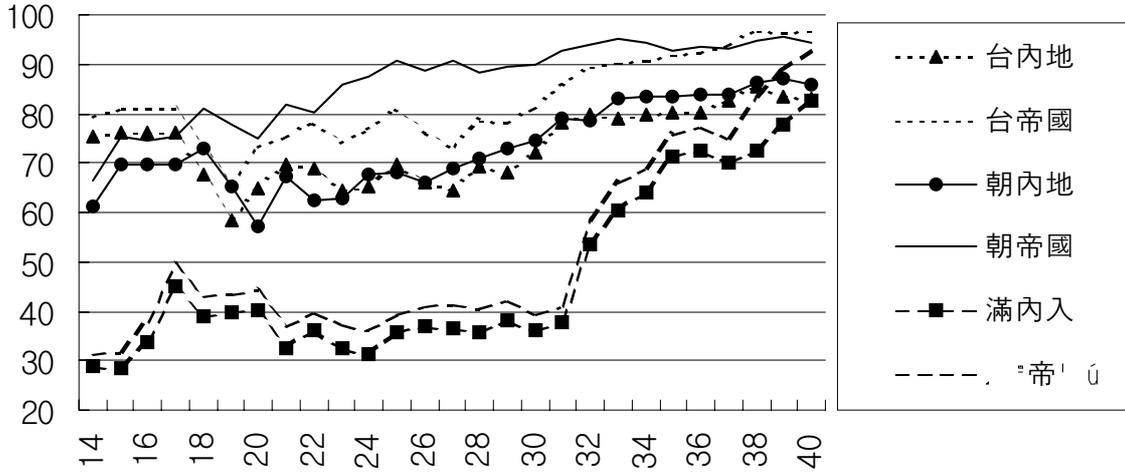
주 : 38년 이후의 영국 식민지에는 뉴펀들랜드가 포함되어 있다.

<그림 2> 각 식민지 수출에서 일본.일본제국의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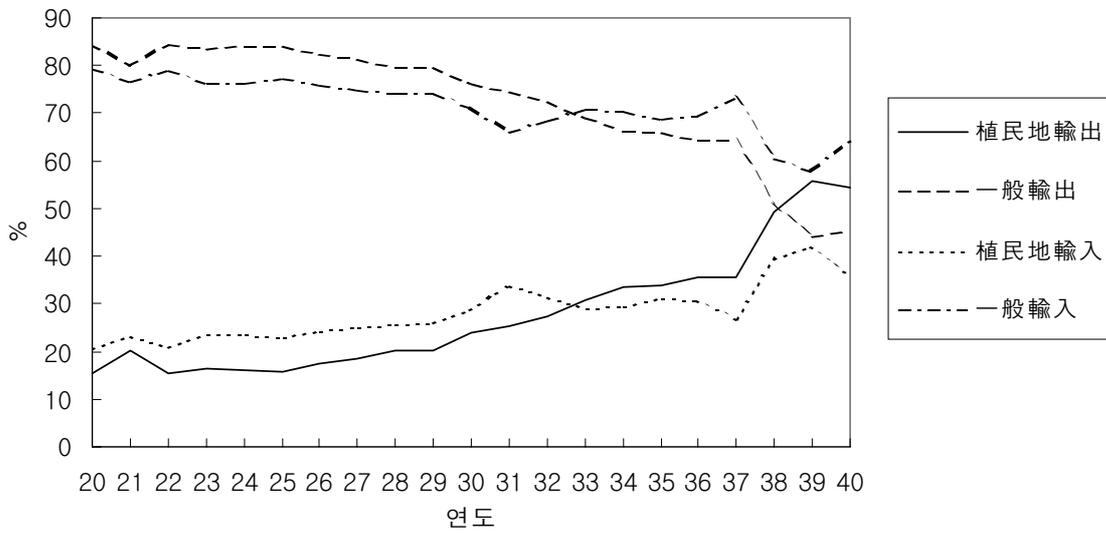
출전 : 大藏省編 《日本外國貿易年表》 台灣總督府編 《台灣貿易年表》 朝鮮總督府編 《朝鮮貿易年表》 各年版, 南滿洲鐵道株式會社編 《北支那貿易年報》 滿洲國經濟部編 《滿洲國外國貿易統計年報》。

〈그림 3〉 각 식민지 수입에서 일본·일본제국의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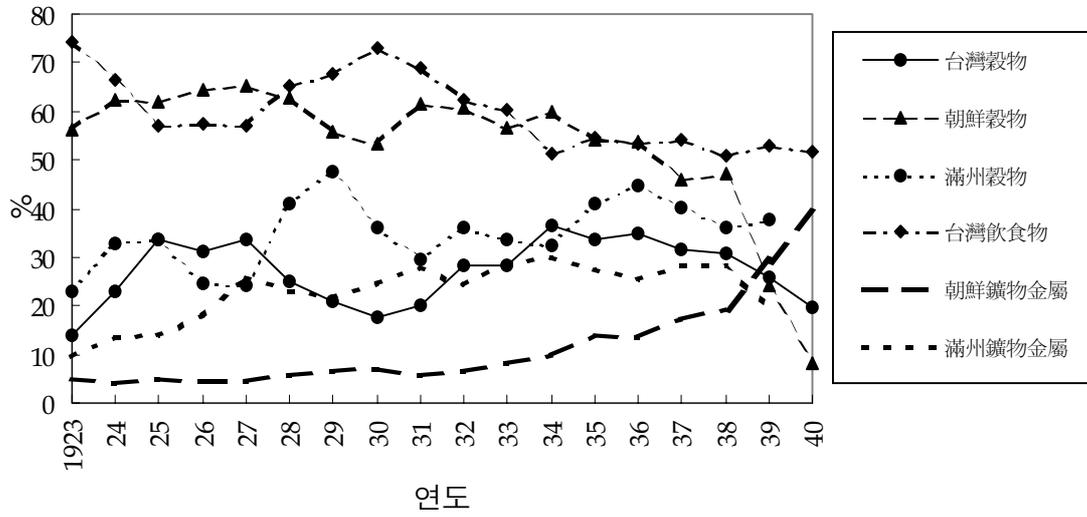
출전 : <그림 2>의 각 문헌

〈그림 4〉 일본 무역에서의 식민지·일반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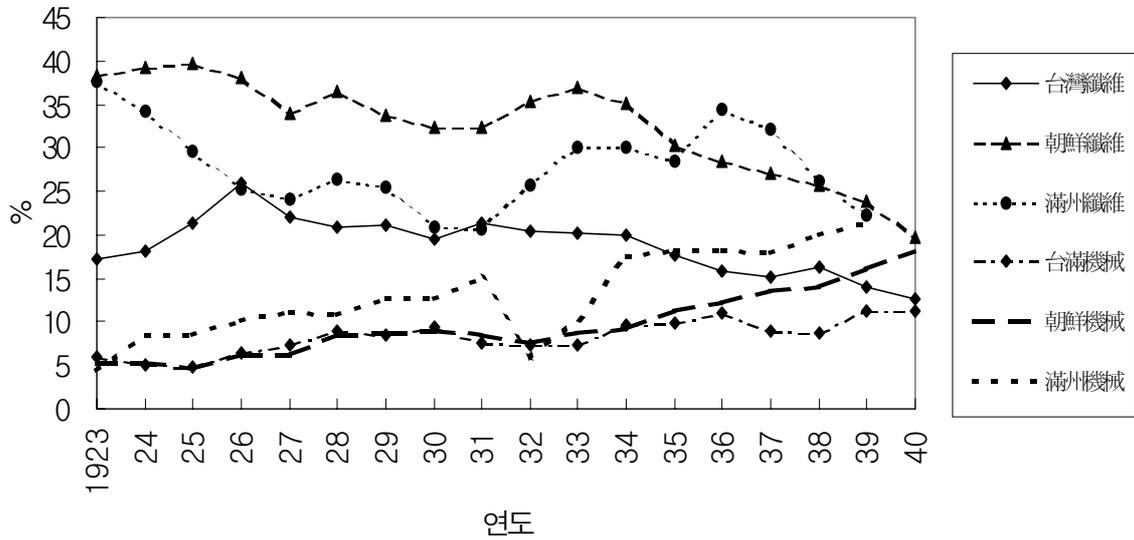
출전 : 台湾總督府 《台湾貿易年表》 鮮總督府編 《朝鮮貿易年表》 關東都督府 《統計書》 關東廳 《統計書》 關東州廳 《關東州貿易統計》 各年版, 日本大藏省編 《日本外國貿易年表》 各年版, 山澤逸平·山本有造編 《長期經濟統計 14 貿易と國際收支》 東洋經濟新報社 1979年。

<그림 5> 각 식민지의 대일 수출의 주요 부문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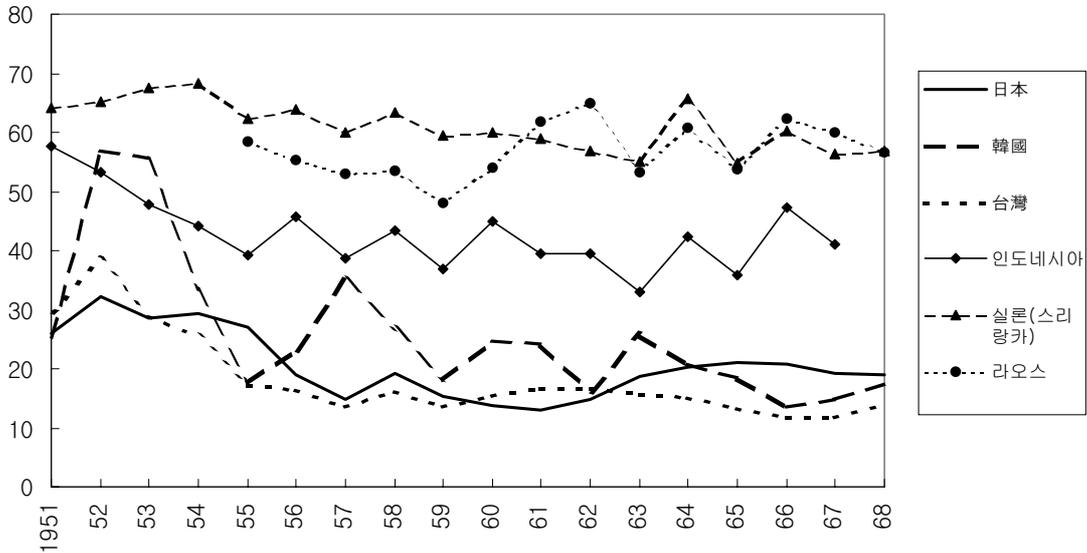
출전 : <그림 4>의 각 문헌

<그림 6> 각 식민지의 대일 수입 부문 비율



출전 : <그림 4>의 각 문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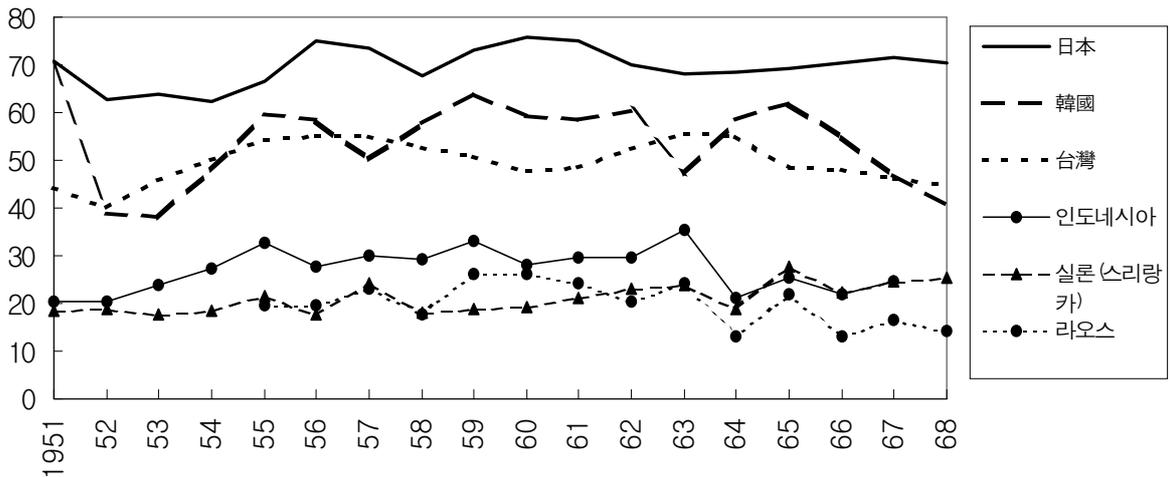
〈그림 7〉 각국 수입중 최종 소비재 비율



출전 : United Nations, Commodity Trade Statistics, : United Nations, Economic Survey of Asia and the Far Eas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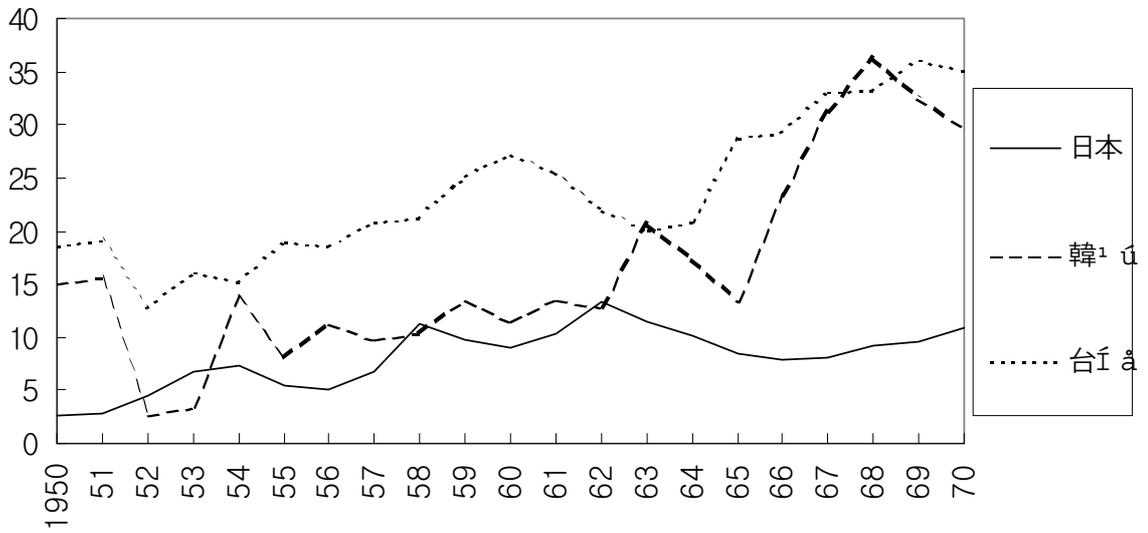
韓國經濟企畫院編 《韓國統計年報》 韓國銀行編 《經濟年鑑》 韓國銀行編 《經濟統計年報》 韓國貿易協會編 《貿易年鑑》 台灣省行政長官公署編 《台灣省五十一年來統計提要》 1946年, 台灣省政府主計處編 《台灣統計要覽》 台灣通信社編 《台灣年鑑》 中華民國海關總稅務司署編 《中華民國進口出口統計年鑑》

〈그림 8〉 각국 수입중 원료·중간재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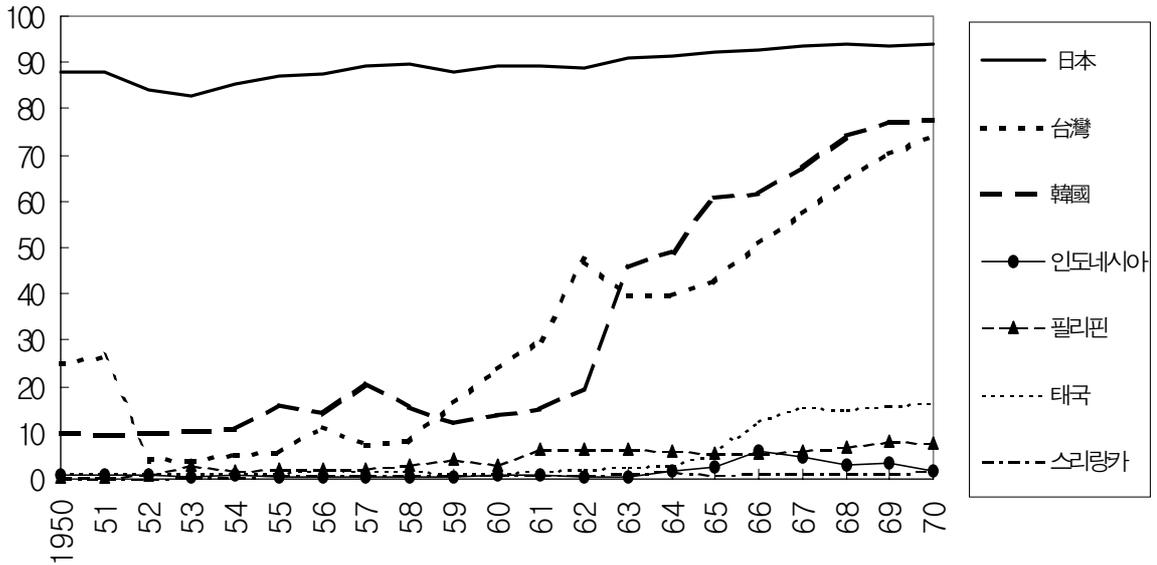
출전 : <그림 7>의 각 문헌

<그림 9> 각국 수입중 기계 부문 비율



출전 : <그림 7>의 각 문헌

<그림10> 각국 수출중 공업제품 비율



출전 : <그림 7>의 각 문헌

[비평문]

정재정

이 논문은 제국주의 일본과 식민지의 경제관계에 초점을 맞추어, 자본주의 발전이라는 관점에서 조선사회의 변화를 동태적으로 파악하고 그 의의를 역사적으로 고찰했다. 그 결과, 제1·2차 세계대전 사이에 동아시아에서 일본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자본주의적 국제관계가 형성되고, 그것은 일본제국의 팽창, 침략, 전쟁, 식민지 지배 강화와 중첩되었으며, 식민지의 자본주의화는 불가항력적 성격의 사회변혁이었다는 점이 밝혀졌다. 일본의 패전 이후, 중화학공업의 생산재 생산부문을 갖게 된 일본은 구미로부터 기술을 도입하여 고도로 발전했고, 미국에 공업제품을 수출하며 한국에 생산재를 공급하는 관계로 전환했다. 植民地期에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을 형성한 한국은 해방 후 독립국으로서 수입대체를 도모하고, 생산재를 수입하여 공산품을 대량으로 수출하는 형태로 무역의존도가 지극히 높은 경제로 전환해갔다.

이 논문은 종래의 조선경제연구가 지나치게 一國主義的 관점에 빠진데다가 解放前後를 斷絶的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했다는 점을 비판하고, 그것을 극복하는 방법으로서 세계사적 규정성과 해방전후의 연속성에 주목할 것을 제시했다. 한국과 일본의 경제관계와 한국자본주의의 形成史를 넓은 시야와 오랜 시간 속에서 通觀하려는 자세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아래와 같은 점을 좀더 유념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 식민지기에 일본자본이 조선에 투입되어 무역이 증가하고 공업이 발흥한 것은 사실이다. 그렇지만 이것이 식민지경제로서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가를 검토하려면, 일본인과 조선인이 각 부문에서 어떤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각각의 활동양태는 어떠했는가를 상호 비교하는 자세를 취해야 할 것이다. 즉 민족별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 논문은 민족간의 차이를 분석하려는 의도가 별로 없다. 왜 그러한가?

둘째, 식민지기의 조선공업과 해방 이후의 한국공업에는 큰 단절이 있다는 점을 看過했다. 前者와 後者の 광공업 부문은 그대로 이어지지 않고 25% 정도 줄어들었다. 식민지기에 주종을 이루었던 식량수출도 계승되지 않았다. 1950년대 한국은 식량수출이 불가능하였고, 오히려 원조로써 부족을 메워나갔다. 인프라스트럭처의 상징이었던 철도의 복구와 운영도 미국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다. 식민지 조선경제와 한국경제의 단절된 측면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하지 않겠는가?

셋째, 동아시아 경제발전의 조건을 식민지 자본주의에서 찾는 것도 이상하다. 한국에서는 해방 이후 식민지 자본주의화의 부담을 털어내는 방법, 즉 농지개혁 등 다양한 사회변혁을 통해 자본주의화를 진행시켰다. 따라서 한국의 경제발전을 논할 때는 한국인이 세계사적 변화에 대응하면서 活路를 개척해간 주체적 노력을 중시해야 하지 않겠는가? 또한 굳이 식민지 자본주의의 유산을 언급하려면 負의 유산도 아울러 지적해야 하지 않을까?

[집필자 답변]

사회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분석시각과 문제설정이 있을 수 있다. 비평자가 첫째로 지적하고 있는 민족문제의 시각 외에도 계급관계, 기술/생산력, 법률/제도, 이데올로기 등 여러 과제가 있다. 전공논문이란 어떠한 시각을 설정해서 분석에 임하기 마련이며, 모든 문제를 다룰 수는 없다. 만일 가령 그런 일을 시도한다고 해도 아무런 의미 있는 성과도 거두지 못할 것이다. 나의 논문은 무역 면에서 볼 때 이 시기 조선의 사회경제 변화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하나의 논문에 지나지 않는다. 민족분석의 시각은 애초부터 설정돼있지 않다.

둘째로 지적된 해방전후의 단절성은 오히려 기존연구에서 강조되어왔기 때문에 여기서는 연속성에 초점을 맞췄다. 단절의 측면을 다루고 있지 않다는 점은 지적한 바와 같다.

셋째로 주체적 행위를 중시해야한다고 했으나, 본래부터 해당사회 사람들의 주체적 행위가 없는 사회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지적은 별로 의미가 없다. 또한 긍정적 유산과 별도의 부정적 유산에 대해 언급해야한다고 했지만, 나의 논문은 식민지시대의 사회경제변화에 대한 규정성의 크기를 강조하고 있으므로, 애초부터 긍정(좋다) 혹은 부정(나쁘다) 식의 가치판단은 하고 있지 않다.